

1923

간토대학살

관동대지진 이후 벌어진 참혹한 학살
101년간 부정당한 진실을 파헤치다!

<1923 간토대학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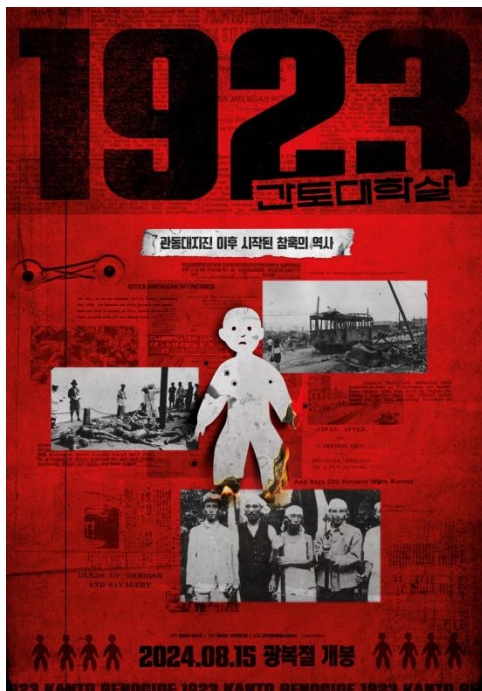
광복 79주년, 8월 15일 극장 개봉 확정!
런칭 포스터 전격 공개!

관동대지진 직후 시작된 조선인을 향한 학살을 다룬 첫 다큐멘터리 영화 <1923 간토대학살>이 오는 8월 15일 극장 개봉을 확정하고 런칭 포스터를 공개했다. [감독: 김태영, 최규석 | 출연: 니시자키 마사오, 세키하라 마사히로 | 제작: 김태영, (주)인디컴, 스튜디오 반 | 배급: (주)영화특별시SMC | 공동 기획: 시민모임 독립 | 공동 제공: 가톨릭문화원, 영화사청어람, (주)서울무비웍스 | 개봉: 2024년 8월 15일]

진실에 대한 인정도, 사죄도 없었던 101년!

결코 잊지 않기 위해 더 싸우는 사람들을 따라가다!

방대한 자료와 생생한 증언으로 기록된 <1923 간토대학살> 8월 15일 극장 개봉 확정!



1923년 9월 1일, 10만 5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관동대지진 직후 무고한 조선인을 향한 대학살을 다룬 첫 다큐멘터리 영화 <1923 간토대학살>이 오는 8월 15일 극장 개봉 소식을 알렸다. **영화 <1923 간토대학살>은 조선인을 향한 대학살을 부정당한 101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언의 목소리와 기록을 되짚는 다큐멘터리.**

<1923 간토대학살>은 조선인 대학살이 벌어진 지 10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진실을 은폐 및 부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맞서 세계 역사에 더욱 알려져 기억되고,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싸우는 소수의 일본 정치인과 시민단체 관계자, 학살 피해자 유족들의 증언과 기록에 집중한다. 특히 한국 정부에서조차 무관심한 간토대학살에 관하여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일본 시민단체의 활동을 집중 조명, 일본 정치권의 반성의 목소리를 담았으며 방대한 자료와 생생한 증언 등으로 몰입도를 높였다.

<1923 간토대학살>은 독보적인 연기력으로 활약하고 있는 배우 김의성이 내레이션을 맡아 일찍이 화제가 되었다. 또한 MBC에 재직하며 다수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주제로 한 완성도 높은 다큐멘터리를 연출하고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 등을 제작한 다큐 전문가 김태영 감독이 연출과 제작을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

<1923 간토대학살>은 잊힌 역사,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국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개봉을 확정했다. 광복 79주년을 맞았지만 상흔은 여전하다.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을 향해 진실을 외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개봉 확정 소식과 함께 공개한 포스터 또한, 강렬한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6,661개의 뉘전(죽은 자의 뉘를 받는 종이 인형)과 간토대학살에 대한 이미지와 자료들이 어우러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참극의 시작을 표현해 짙은 울림을 선사한다.

101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기록하며 지금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메시지를 전하는 다큐멘터리 <1923 간토대학살>은 8월 15일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INFORMATION

제목: 1923 간토대학살
감독: 김태영, 최규석
출연: 니시자키 마사오, 세키하라 마사히로
제작: 김태영, (주)인디컴, 스튜디오 반
배급: ㈜영화특별시SMC
공동 기획: 시민모임 독립
공동 제공: 가톨릭문화원, 영화사청어람, (주)서울무비웍스
장르: 다큐멘터리
관람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16분
개봉: 2024년 8월 15일

SYNOPSIS

조선인을 향한 대학살

101년간 과거를 부정한 일본 정부

1923년 9월1일, 관동대지진 직후
일본 정부는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계엄령을 내리고,
무고한 조선인을 무참하게 학살하기 시작했다.

인류 역사에 유례를 볼 수 없는 반인류적인 범죄이자 제노사이드인 학살 사건
그리고 101년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스기오 의원 등
일본 정치인, 시민단체 관계자, 학살 피해자 유족들까지
진실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한 목소리를 따라간다.
그리고 서양 함대 군인이 찍은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는데...

왜곡된 101년, 잊을 수 없는 간토대학살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